**행복한 병원을 위한 고객만족서비스 – 병원편**

 **청도군립요양병원 진료과장 강경모**

**문항1. 감염관리범위의 해당영역(수술실, 중환자실, 내시경실)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술실, 중환자실, 내시경실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감염관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1)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에 대하여 모두 감염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2)충분한 사전/사후 손씻기, 체액 노출시 충분한 씻기를 반드시 시행한다.

3)주삿바늘을 포함한 날카로운 기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늘뚜껑 다시 씌우기 금지, 바늘 변형 금지, 적절한 별도의 주사침통 마련하기)

4)적절한 개인보호구(마스크, 고글, 장갑, 가운, 안면보호대)를 착용한다.

5)개인보호구의 착의/탈의 과정에서도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차적인 오염이 없도록 한다.

6)안전한 심폐소생술 기구 준비 : 구강대구강 심폐소생술의 필요를 최소로 하기 위한 장비들을 심폐소생술이 예견되는 곳에 항상 비치한다.

7)감염성 분비물 및 삼출물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의료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8)임신한 직원의 경우 주산기전파가능성을 알고, 지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수술실/중환자실/내시경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감염질환은 A형/B형/C형 바이러스성간염/HIV 및AIDS/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ococcus aureus)/VRE(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us)/결핵(Tuberculosis)/Creutzfeldt Jackob disease(CJD) 등이 있다.

수술실/중환자실/내시경실에서 각자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감염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수술실의 감염관리**

- 수술방 입구, 침상, 수액봉에 감염환자를 알리는 표시판을 붙인다.

- 최소한의 기구와 기계만을 수술방에 비치하며,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한다.

- 수술실 출입구에 알코올로 적신 포를 깔아 모든 의료진이 밟고 지나가도록 유도한다.

- 오염된 기구/의료장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적절한 소독제로 세척한다.

- 바닥에 떨어진 모든 기구/물체는 장갑을 낀다.

- 안구점막보호를 위한 보호경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비말/공기전파가 가능한 질환 환자의 경우 수술방 출입문을 반드시 닫도록 한다.

- 감염자의 체액/적출된 조직을 검사의뢰시 별도 표기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직후별도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폐기한다.

- 수술방 출입시 환복을 한다.

- 감염원에 노출시 감염원을 물로 씻고 소독하고, 감염관리실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2) 중환자실의 감염관리 :**

- 중환자실은 병원 내에서 의료관련감염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 중환자실내 병원감염 발생률을 감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염감시를 시행한다.

- 기구관련 감염관리(유치 도뇨관, 인공환기기, 중심정맥관 등)를 원칙에 따라 시행/유지/제거한다.

- 질환별 적절한 격리실을 마련하고 격리실 관련 프로토콜을 준수한다.

**(3) 내시경실의 감염관리**

- 내시경 시술 공간은 세척/소독/멸균공간과 분리한다.

- 내시경 소독시 세척-소독-헹굼-건조-보관 과정을 준수하고, 각 과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혈액/체액/공기매개감염원으로 내시경실 주위 환경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경 소독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감염관리지침, 대한감염관리학회, 의학출판사

수술기본간호지침, 서울대학교병원 수술부

병원감염관리지침,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

중환자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내시경학회지 2011;43(Suppl 2):66.

**문항2. 수술공간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시오.**

수술실은 감염의 위험성이 때문에 공간의 분리와 사용의 구분이 병원내 타 구역보다 엄격해야 한다. 수술실 구역은 제한구역, 준제한구역, 허용구역으로 구분된다.

제한구역은 시술 및 수술을 위한 적절한 복장과 신발착용 후 출입하는 곳으로 수술실, 스크럽영역, 소독물품보관실, 마취준비실, 수술준비실이 포함된다.

특히 수술실은 오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위해 정화된 공기가 단방향순환시설을 통해 환기되어야 하며, 일부는 신선한 공기여야 한다. 온도 및 습도 또한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이 구역에서 의료진은 적절한 모자, 마스크, 수술가운, 멸균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이것은 환자에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준제한구역은 소독준비실, 외래환자준비실, 갱의실이 해당되며, 수술복장과 모자, 깨끗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허용구역은 평상복을 입고도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이다.